

“밸런타인데이 특수 잡아라”… 유통가 마케팅 ‘후끈’

편의점 4사 캐릭터와 연계한 초콜릿 협업 굿즈 특화
백화점은 팝업스토어·다양한 상품으로 눈길 잡기
다이소 'DIY 기획전'… 초콜릿 재료 등 160여 종 출시

유통업체가 14일 밸런타인데이 대목을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는 위축된 상황이지만 1분기 최대 대목인 밸런타인데이 특수에 나선 것이다.

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캐릭터와 연계한 초콜릿 협업 굿즈(Goods·상품)로 승부수를 띄웠다.

GS25는 글로벌 젤리 브랜드 ‘하리보’에 니메이션 ‘주술회전’ 아티스트 ‘매튜랜질’ 등과 협업했다. △하리보 냉장고 자석·발매트·물컵 △주술회전 세트(블렌·여권 지갑·키링 등) △매튜랜질 패션 굿즈(양치마·에코백·가방) 등이 대표적이다.

CU는 에버랜드 카피바라 캐릭터 ‘뿌직

이&빠직이’와 곰 캐릭터 ‘리락쿠마’를 포함한 협업 상품 34종을 선보였다. 주로 키링과 에코백·캐리아보·냉팩 등으로 구성했다. 세븐일레븐은 170만 유튜브 ‘미미미누’와 캐릭터 ‘랏소베아’와 협업해 쿠션·파우치 세트를 출시했다.

이마트24는 실속형 상품으로 밸런타인데이 마케팅에 나섰다. 이마트24는 단품 초콜릿 전 상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다다익선 반값 쿠폰팩’ 행사를 진행한다. 여러 지인들에게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대카드도 단품 초콜릿 상품을 구입할 시 구매 금액 구간별로 반값 쿠폰을 제공한다.

실속형 기획상품도 선보인다. 벌룬프렌



롯데백화점이 밸런타인데이에 즈음해 ‘시시호시’의 ‘러브 디어(Love, Dear)’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즈의 ‘미야오캣’ 캐릭터가 그려진 ‘미야오캣 키링세트’ ‘스타커세트’ 등을 비롯해 ‘페레로로체T3 4입 선물세트패키지’ 및 초콜릿과 젤리로 구성된 ‘스윗박스’ 등 119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기획상품의 절반 이상은 1만 원 이하로 구성해 고객 부담을 최

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백화점업계는 밸런타인데이 특수를 위한 팝업스토어(임시 매장)와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16일까지 밸런타인데이 기획전을 연다. 본점과 잠실점에서는 유명

베이커리파티세·디저트숍 등 총 13개 브랜드와 협업해 디저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에스티오·다시세이도 등과 함께 뷰티 기프트 페어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도 14~16일 ‘로맨틱 올산’을 테마로 한 밸런타인데이 행사를 열고 장신구와 뷰티, 란제리 등의 ‘로맨틱 기프트’ 30개 세트 상품으로 구성해 특가 판매한다. 이와 함께 7~14일 샴페인·젤리·초콜릿 등 다채로운 식품 팝업 행사를 마련한다.

이마트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 할인행사를 연다. 밸런타인데이 기획전은 14일까지 진행된다. 유럽 프리미엄 초콜릿부터 이마트 단독 상품까지 220여 종의 초콜릿을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 앱에 올리케이션) 내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초콜릿 최대 30% 할인쿠폰도 제공

한다. 앱에서 내려받아 계산대에서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 허쉬 초콜릿 11종을 대상으로 1+1(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도 연다. 페레로로체 오리진스 T36은 행사 제휴 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40% 할인된다.

다이소는 ‘밸런타인데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초콜릿 DIY(Do It Yourself) 재료·초콜릿 DIY 도구·포장용품 등 총 16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직접 초콜릿 선물을 만들어 정성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DIY 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바크 과일 초콜릿 만들기 세트부터 꾸덕하고 끈적한 브라우니를 만들 수 있는 브라우니 믹스도 있다. 베이킹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DIY 도구도 마련했다. 테두리로 포인트를 준 실리곤 베이킹 몰드 15구 하트·젤주머니 세트 깎지 등을 비롯해 예쁘게 만든 초콜릿을 더욱 빛나게 해 줄 포장 용품도 선보인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하이트진로 베트남에 첫 생산공장 착공

타이빈성 2026년 완공 예정

연간 최대 500만 상자 생산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아이파크(GREEN i-PARK) 산업단지에서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대망의 첫 삽을 찔렀다. 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공장이 세계 시장의 생산·유통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로(JINRO)의 대중화’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식에는 김인규 대표이사와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전무·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 등 하이트진로 관계자와 응우옌 각 탄 타이빈성 서시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응우옌 각 탄(Nguyen Khac Than) 타이빈성 서 시장은 착공식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공장 건립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착공식을 기념해 사자춤·착공식 세



하이트진로가 해외 첫 생산기지 베트남 공장을 착공한다.

하이트진로

레머니 등 공식 행사가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은 축구장의 11배 크기인 약 2만5000평(8만2083㎡)의 부지 면적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로 2026년 내 완공될 예정이다. 연간 최대 약 500만 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하이트진로 측은 내다보고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해외 소주 수출의 출발점이었던 베트남에서 해외 첫 생산 공장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돼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 공장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장 확대의 교두보이자

글로벌 종합 주류 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 세계에 ‘진로(JINRO)의 대중화’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전략 국가를 거점으로 지정해 수출국 다변화에도 집중할 예정이고 가정 시장뿐만 아니라 유흥 시장으로도 영업 범위를 확대한다.

로컬 프랜차이즈 계약과 지역 내 핵심 상권을 우선 공략하고 거점 일소 및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커뮤니케이션 활동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역공 나선 고려아연… 행동주의펀드 손잡나

영풍정밀·머스트자산운용 비슷한 시기 주주 제안

‘머스트’는 연합설 부인… 영풍 “절차대로 고려 중”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 측과 행동주의펀드의 반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주의펀드와 고려아연 측의 연합전선이 형성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6일 영풍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머스트자산운용과 영풍정밀 측의 주주제안을 절차에 따라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5일 영풍 2025년 정기 주주총회 주주제안서 내용을 공개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이슈로 영풍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어 영풍 지분율의 10%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됐다고 지적하고 영풍이 기업가치 저평가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2024년 11월에도 자사주 소각과 함께 부동산 자산재평가와

풋옵션 옵션 대상 주식 수 및 행사 시기 옵션 주식 할당 비율 등에 대해 영풍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빠른 실행을 요청했고 사외이사 후보 3인을 제안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회사 측의 선명한 실행 의지에 대한 표현을 들어 왔고 회사가 집중하는 프로젝트들의 혼란스럽고 난해함을 감안해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소통을 해 오진 않았다”며 “그 연장선에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회사측에 답변하게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일 업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배주주인 영풍정밀이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액주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기 좋은 수단이다.

영풍 측 지분율이 과반수를 넘는 영풍 지분 구조 특성상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최윤범 회장 측 인물을 이사회에 투입하거나 행동주의펀드를 대표하는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기 좋다. 그러나 머스트자산운용 측 대리인과 통화한 결과 고려아연 측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의 집중투표제 제안이 머스트자산운용 측 사외이사 이사회 진입에 유리한 만큼 사실상의 연합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미국 애국 한인 동포들이 호소합니다! (동포 호소 3차)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반국가 세력 실체가 드러난 지금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목숨 걸고 알린 **‘부정 선거’** 국민이 나서 검증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정면 돌파로 반국가 세력과 맞장 뜬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를 알린 대통령을 국회·법관·사법기관은 불법 내란 몰아하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자유와 법치를 외친 2030 청년들을 경찰은 억압하고 사법부는 폭압과 무자비로 구속합니다.

반국가 세력의 만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국정원 홍장원의 유언비어, 공수처의 불법 만행, 언론사의 편향 보도, 국힘당의 배신, 문형배 법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정 공갈 협박이 합법인 **법관 지배 나라** 되었습니다.

- **법관 문형배**는 이재명과 절친이며 반미주의, 6·25북침 신봉 의심자입니다.
- **법관 이미선**은 친동생 이상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 **법관 정계선**은 남편 황필규가 민주당 탄핵소추단 법무법인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명하십시오!

국가 기관에 의해 법이 사망한 나라,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국민이 일어나 살려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남은 ‘유일한 법’은 국민입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 위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는 멀리 있어 갈 수 없어 눈물로 이렇게나마 국민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 소식에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며 갈 수 없어 신문으로라도 [인 시위]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모임 대표 장동신(목사) 외(가나다 순) New York 김영덕(Ph.D), 노가승(목사), 박동영, 백도현, 신홍규, 이창무, 이창일, 홍종학 New Jersey 강영숙, 김명식(목사), 김미경, 김승이, 김영길, 김영이, 김진아, 남영순, 남봉우(목사), 서정학(목사), 박종란, 이규연(목사), 이병준(목사), 이주희, 이호수, 오대석(목사), 육민호(목사), 윤자선, 윤한진, 전용국, 전재현, 정일권, 정철수(목사), 최윤정 Atlanta 권기호, 김상오, 심우철, 오대기, 유명화(목사), 유종현(Ph.D), 이재승, 장병국, 주중광, 하재권, 홍성구 Houston 오영국, 유월환, 유승희, 이경복, 이명순, 정수지, 조명희 Ohio 김경애, 김라나, 김영희, 김활란, 박성현, 양기화, 유미화, 유명화, 이옥년, 이충영, 임윤선, 주순영, 이춘만 Arizona 김영미, 김숙희, 김희순, 서덕자 New Mexico 문상기, 전마옥, 차진주, 한광윤 North Carolina 송세진(Ph.D), 유영걸, 최은순 Washington D.C. 이용호, 이윤희, 옥경호, 서은정 Los Angeles 김영구(목사), 김순희, 김원주, 김은순 Seattle 안선교, 이영윤 Missouri 손인식 Connecticut 강병목, 오상태 Hawaii 김성자, 지도현, 양상훈 Chicago 이경복 Minnesota 황상선 Philadelphia 김정도(목사), 이영근, 신만식 Phoenix 박태영 Silicon Valley 신민호, 이상원, 이종원 Tacoma 김재필, 이명운, 장석태, 최태규, 코리아 Spokane 신원택, 신원식, 하동해 KansasCity, Missouri 김성배, 정영로, 최병연, 허장(목사)